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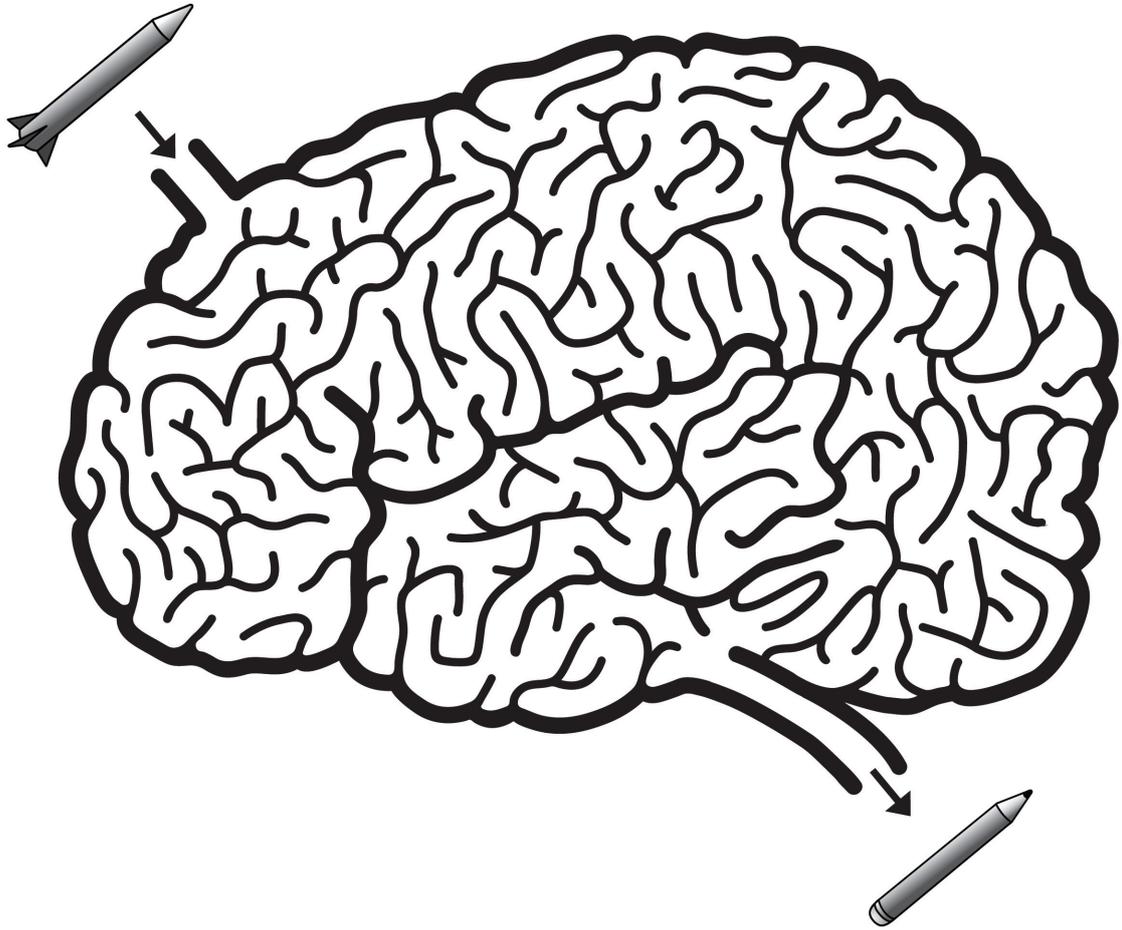
IBREA Report

Vol.7 | 2015년(단기 4348년) 10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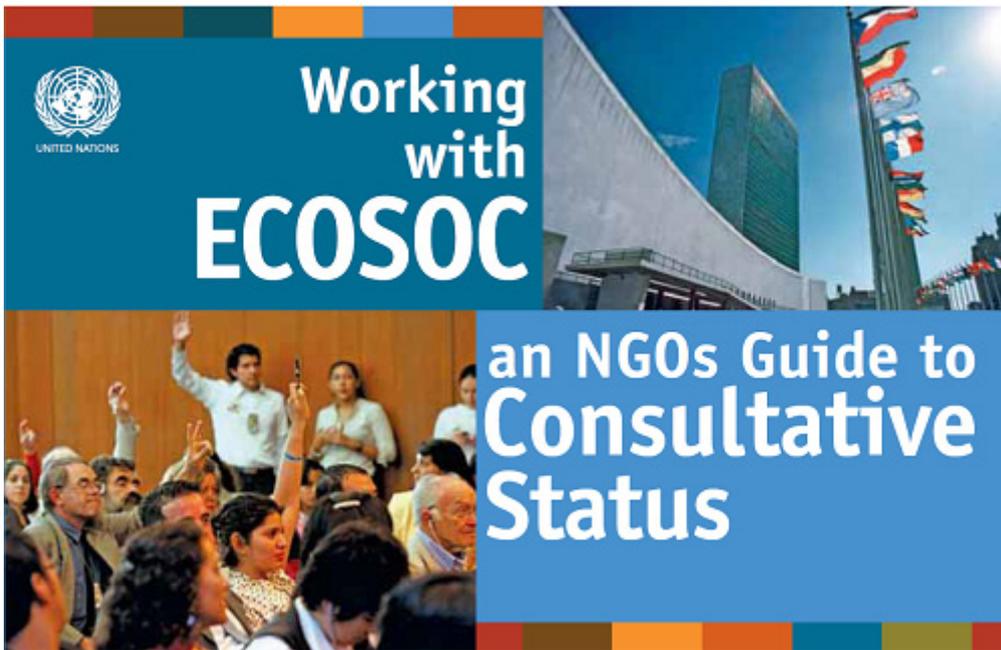
CONTENTS

The Answer is the Brain

-
- News**
- 1 미주 국제뇌교육협회,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 승인
 - 2 韓 뇌교육, 美 학생들의 두뇌를 변화시키다
- 미국 뉴욕, 애리조나주립대서 뇌교육 컨퍼런스 개최
 - 3 이승헌 협회장, 중국에 HSP 문화를 전하다
- 중국 상해 '도시의 빛' 포럼에서 초청특강
 - 4 엘살바도르 뇌교육 감동스토리 이어간다
- 라우라 대학보내기 후원프로젝트
-
- Report**
- 뇌과학 기반 체험형 인성교육, 뇌교육
 -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개발 방향



광고인 이제석씨가 국제뇌교육협회에 재능기부한
'뇌교육'을 상징화한 광고입니다.



美 국제뇌교육협회,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협의지위 승인

국제뇌교육협회가 뇌교육의 미주보급을 위해 2007년 미국에 설립한 IBREA Foundation이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로부터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를 승인 받았다.

21세기 인류 미래의 키워드인 ‘뇌’ 자산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해 2006년 한국에서 설립된 국제뇌교육협회는 2009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참여회원사, 2010년 유엔공보국(UN-DPI) 정식지위 NGO 승인에 이어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협의지위까지 승인을 받으면서 뇌교육 분야의 글로벌 중추기구로서의 국제적 공신력을 명확히 확보했다.

이번 협의지위 획득은 2011년 시작되어 현재 전국으로 규모가 확대된 엘살바도르 뇌교육 프로젝트 등 교육을 통한 평화 확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은 결과이며, 해외원조사업을 중점추진하고 있는 미주뇌교육협회는 이후로 국제사회의 정부/비정부기관들과 협력하여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협의지위’ 자격을 부여받은 단체는 유엔이 개최 또는 주관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해 인류공동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실천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매년 뉴욕, 제네바, 비엔나의 유엔본부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국發 뇌교육, 美 학생들의 두뇌를 변화시키다

– 미국 애리조나주, 뉴욕서 뇌교육 컨퍼런스 열려

“우리의 뇌 잠재력을 완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뇌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하고, 열정적인 꿈을 가져야 합니다. 뇌운영시스템인 B.O.S.를 통해 우리 뇌와 친해지고, 명확한 비전을 선택해 집중하면 뇌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와 파워브레인에듀케이션(이하 PBE), 바디앤브레인은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에서 지난 8월 23일 뇌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적극적으로 두뇌를 훈련하는 뇌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혁신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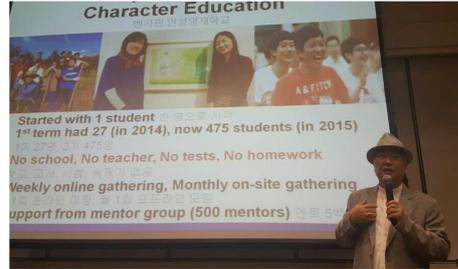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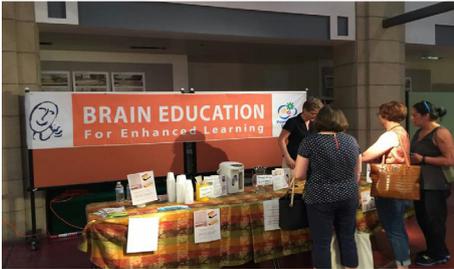
이 자리에서 미국의 학교 현장에서 자신감과 집중력, 인지력을 향상시킨 뇌교육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었고, 현장에서 체험할 수도 있어서 참석한 약 200명의 교사, 학부모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각각 학생들의 동기과 창의성 높이기, 스트레스와 분노 조절, 자신감과 행복 높이기 등에 대한 생생한 세션과 프레

젠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은 뇌의 잠재성과 인성교육에 대한 기초 강연을 했다. 이 협회장은 자신이 설립하여 실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벤자민인성영재 학교 사례 영상을 보여주었다. 어린 학생들이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에 일부 청중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뇌교육이 두뇌를 훈련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하와이 주립병원 정신의학과





장인 제임스 웨스트팔 교수는 “뇌교육 수련법은 복잡 잡힌 생각에 빠진 뇌를 고요하게 하고, 몸의 자율신 경계 시스템을 스트레스 상태에서 회복 상태로 바 꾸줍니다. 또한 주의를 외부에 두어 잡념에 빠지기보 다 우리 몸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스카이라인 차터 스쿨(자율형 공립학교) 의 로드니 제임스는 자신이 관리하는 6개 학교에서 경험한 뇌교육의 효과를 생생하게 설명했다. 그는 학 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적극적으로 변화하

게 된 모습을 보고 일선 교사들도 매우 고무되었다 고 전했다.

이어 데이브 빌 PBE 및 미국뇌교육협회 이사가 뇌교 육에 관한 성공적 사례와 함께 미국에서의 뇌교육 도 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PBE는 뉴욕 시 120개 학교를 포함해 미국 전역 350여 개 학교에서 1만여 명의 교 사와 3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뇌교육을 전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해 지역사회 에 뇌교육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큰 공감을 표했다.



애리조나 주에 이어 지난 9월 12일 뉴욕에서 열린 뇌교육 컨퍼런스에서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은 미국 뉴욕 주 브롱크스의 감사패를 수상했다. 브롱크스 루벤 디아즈 보로장은 “뇌교육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협동, 건강, 집중력, 정서적 건강, 창조성, 인성과 시민정신을 함양했다”라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강연회에는 뉴욕 시의 중요 장학사와 교장단, 관계자 100여 명을 포함해 300 여 명이 참석했다.

루벤 보로장은 “뇌교육 프로그램은 브롱크스 22개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수천 명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혜택을 주었다. 브롱크스 커뮤니티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아이들의 건강과 체력과 정서를 향상한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평가했다. 브롱크스 공립학교에 도입되어 연구한 결과, 뇌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아 효능감, 정서적 건강, 정보처리 능력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추리력 등을 향상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워싱턴 D.C, 뉴욕, LA, 애틀랜타 등 26개 도시에서 ‘뇌교육의 날’을 지정한 바 있다.

[출처] 브레인 Vol.54 | 조해리 기자 hsaver@naver.com

이승헌 협회장, 중국에 HSP 문화를 전하다

– 중국 상해 ‘도시의 빛’ 포럼에서 초청특강

중국도시경제학회 도시발전연구센터(이하 중국도시발전연구센터)는 중국도시경제발전서비스센터, 상해사회과학원대학원, 상해시 정안구 문명사무소와 공동으로 밝고 빛나는 생명, 건강한 너와 나를 위한 ‘도시의 빛’ 시리즈 행사로 지난 9월 21일 상해전시중심 우의회당에서 도시발전 전문가를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 초청특강자로 초대 받은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은 ‘지구경영과 건강하고 밝은 사회와 개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협회장은 “개인과 사회가 밝고 건강하기 위해서 먼저 개인 스스로 자연치유력을 회복해야 한다. 자연치유력은 우리 안에 자연의 리듬이 찾는 것이다.”라며 “건강의 핵심은 이론이 아닌 실천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남녀노소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치유 건강법으로 발끝치기와 걷기 운동인 장생보법을 제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또한, “내 안에 아름답고 위대한 가치가 있다. 나를 아름답게 빛나게 하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자연치유력을 회복하고, 인성이 좋아진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진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HSP운동이다. 35년 전 한국의 작은 공원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다. G2인 중국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는 것이 감격스럽다”라며 도시의 빛 행사를 축하했다.

이에 앞서, 좌학금 상해사회과학원 인구와발전연구





원 소장은 ‘건강한 도시건설과 시민건강증진’을 주제로 하여 “도시 및 건축을 설계할 때 무엇보다 시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호소금 복단대학 사회발전및공공정책과 교수는 ‘도덕경을 바탕으로 한 자연과 건강 생활’을 주제로 하여 “개인의 건강은 자연의 조화 음양의 원리에 따라 공원 등의 자연 속에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생활은 자연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도시발전에 있어 자연의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날 주최기관인 도시발전연구센터는 “매일 가족을 한 번씩 안아주세요. 친구를 한 번씩 격려해주세요. 낯선 사람과 한 번씩 웃으세요. 자연을 가까이하여 환경을 아껴주세요. 빨리 걷고 가볍게 뛰어 신체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낙천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매일 당신은 생기가

넘치고, 건강과 행복,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를 시민들에게 제안했다.

이 행사는 중국 정부가 조화롭고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자는 방향에 발맞추어 개개인의 심신 건강관리와 인격 완성을 위한 ‘자아완벽’의 개념을 보급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최되었다.

행사 주관기관인 HSP체뇌훈련센터는 이승현 총장이 개발한 뇌교육을 바탕으로 건강(Health), 행복(Smile), 평화(Peace)를 창조하는 방법을 훈련을 통해서 알려준다.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뇌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자기계발을 도와주는 트레이닝 센터이다.

엘살바도르 뇌교육 감동스토리 이어간다

- 라우라 대학보내기 후원프로젝트



전에는 거의 옷은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옷은 워도 많고 행복해요

● 프로젝트 요약

라우라를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었죠. 라우라는 2011년 엘살바도르에 뇌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을 때 첫 번째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그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녀는 자신과 아이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창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대학에 가고자 합니다.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라우라와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우라가 그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결심과 의지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라우라를 도와주세요!

● 과제

2011년부터 라우라는 그녀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포함한 2012~2014년 동안의 많은 불행에도 불구하고, 라우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갈 준비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아이를 돌보면서 그녀의 할머니와 언니(여동생)과 함께 동네에서 사탕을 팔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학등록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해결방법

이 프로젝트를 통해 라우라가 산살바도르 시의 대학에서의 5년간 학비와 생활비를 모금하고자 합니다. 올해(2015년) 6월과 7월, 그녀는 9월에 있을 국립대학입학시험 공부를 위해 산살바도르에 갑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모금한 돈은 이 준비기간 동안의 비용과, 5년간의 대학 등록금, 교통비, 식비, 그리고 그녀의 아들 양육비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 장기적인 기대 효과

라우라의 사례는, 자신의 꿈이 성취하기 너무 어렵다고 느끼고 있을 세상의 많은 다른 소녀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교육으로, 라우라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지역공동체를 돕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과 발전의 스토리가 자신 뿐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가치 있는 효과가 더 있을까요?

● 후원 정보

25달러: 라우라의 교통비 지원

50달러: 라우라 일주일 식비 지원

100달러: 라우라 대학 교재비 지원

200달러: 대학 등록금 지원

● 후원 하기

국제뇌교육협회 홈페이지(www.ibrea.org)에서 ‘후원하기’

※ 연말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Send Laura to college

Summary

Do you remember Laura? Her story touched many people’s hearts. In 2011, Laura was one of our students when we implemented brain education in El Salvador for the first time. Her changes were transformational and she made her mind to create a better life for herself and her child. Now she wants to go to college. There are many Lauras in El Salvador and in other countries. Let’s help one girl who can be a model for many others because of her determination and will to overcome her limitations.

What is the issue, problem, or challenge?

Since 2011, Laura has been working hard to create the life she wants. Despite many odds in 2012–2014, including the loss of her mom, Laura worked hard to finish her school and get ready for college. Currently she is taking care of her baby, her grandmother and her sister with a small job selling candy in her community. She does not have the means to pay for her college years.

How will this project solve this problem?

This project will fundraise to provide for her study and living costs during her 5 years of university in San Salvador. Specifically, during June and July of this year, she will go to San Salvador to receive tutoring for the entrance exam to the National University which will take place in September. The funds will help her costs in this preparation period, plus her tuition, daily transportation, meals, and support for her son’s care for her 5 years of University.

Potential Long Term Impact

By helping Laura, you will give hope to the many other girls around the world who might feel like their dreams are too difficult to achieve. Furthermore, through her education, Laura will not only help herself but also her family and her community. What can be more valuable in the long-term than a real personal story of growth and development bringing outcomes that benefit the wider community?

<http://www.globalgiving.org/projects/send-laura-to-college/>

뇌과학 기반 체험형 인성교육, 뇌교육



목차

1. 21세기 뇌과학, 인성교육 패러다임을 바꾼다
2. 뇌를 이해하고 알고 활용하는 교육
3. 뇌과학 기반 체험적 창의인성 방법론 갖춰
4. 한민족 전인교육의 철학과 뇌과학 접목

1. 21세기 뇌과학, 인성교육 패러다임을 바꾼다



21세기를 대표하는 키워드인 ‘뇌’가 과학, 건강분야를 넘어 교육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마음이 뇌의 작용이라는 뇌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 행동을 규정짓는 생각과 사고, 집중력, 정서작용, 인성함양

등 교육의 핵심가치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인성’은 교육 분야에서 오래된 가치이자 핵심적인 주제이자 추상적 영역으로 인식되었지만, 뇌에 관한 과학적, 의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정서조절, 대인관계, 스트레스조절,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 인지, 정서, 행동 간의 상호 유기적 관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론이 아닌 실제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인성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뇌과학 차원에서 총체적인 ‘학습(learning)’이란 현상을 살펴보면 기억, 집중, 사고, 논리추론 등의 인지기능적 요소뿐 아니라 신체활동에 따른 신경생리학적 변화, 감정반응에 따른 정서상태의 인식 및 조절능력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신체활동과, 정서, 인지학습은 독립적 요소가 아닌 인간 뇌의 기능과 발달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성과 밀접한 긍정적 정서는 인지 구성 요소를 증가시켜 복잡한 인지적 맥락에도 집중력과 융통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창의성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뇌기능상 스트레스는 대뇌변연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전두엽에 인지부하를 높여 사고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정서조절 전략은 학습 능력 향상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정서는 그것이 긍정적인 정서이든 부정적인 정서이든 뇌에 기록되고 의식과 무의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간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정서는 긍정적 정서이며 이는 긍정적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 유발 기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학력저하, 폭력, 왕따, 우울증, 집중력 저하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은 인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자연스럽게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성을 회복시킬 것인가’로 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선진 교육계를 비롯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교육시스템 변화의 공통

점인 ‘휴머니즘’과 ‘창의적 인재양성’과도 맞물리면서 ‘인성’ 문제는 국가인적자원 계발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결과적으로, 인성을 포함한 학습력, 창의성의 증진은 뇌 기능상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갖기 때문에, 당면한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 행동심리학적, 사회적, 교육적 관점을 넘어 뇌과학적 학습기제, 청소년 두뇌발달특성, 신체-정서-인지학습 간의 상호관계성 등을 고려해야 과학적인 차원에서의 실제적인 인성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뇌교육은 이러한 흐름에서 태동한 융복합적 학문으로 주목받고 있다.

2. 뇌를 이해하고 알고 활용하는 교육



교육이란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하며, ‘꺼내어 끌어올린다’라는 라틴어의 ‘educatio’

에서 유래하였다고 되어 있다. 즉, 내부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미숙함을 성숙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뇌교육의 태동은 인류과학의 정점이라는 21세기 뇌과학의 발달에 따른 뇌융합시대의 도래, 그 과정에서 인간 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시대적 흐름 속에 존재한다. 뇌과학-교육의 융합 흐름 속에서 서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뇌기반학습(brain-based learning), 뇌기반교육(brain-based edu-

cation), 신경교육(neuro-education) 등 뇌과학 기반의 다양한 학문적 융합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에 반하여, 21세기 뇌의 시대를 맞이해 한국에서 가장 앞서 정립된 뇌교육은 인간 뇌에 대한 깊은 탐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뇌철학, 뇌운영체계에 대한 핵심원리, 실제적인 뇌기능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체험적 교육방법론을 갖추고 있다는 면에서 2000년대 이후 뇌과학의 발달에 따른 교육적 접목에 초점을 맞추었던 서구의 뇌기반교육과는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지만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은 실질적인 의식과 행동의 변화, 특히 인성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은 이론 위주가 아닌 뇌의 실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체험적 교육방법론에 기반한 뇌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3. 뇌과학 기반 체험적 창의인성 방법론



한국의 뇌교육은 1990년 설립된 뇌활용 분야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한국뇌과학연구원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뇌교육의

원천기술인 BOS(뇌운영시스템 Brain Operating System)의 개발을 비롯해 연령별, 계층별, 영역별 뇌교육프로그램을 중점 연구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오랜 기간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을 거쳐 학문적 토대를 마련했고, 2003년 전 세계 최초로 개설된

뇌교육 석박사 과정을 갖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2010년 4년제 뇌교육학부를 갖춘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개교 등으로 이어지면서 뇌교육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4년제 학부-대학원’ 인프라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서 갖춘 나라가 되었다.

서구에서의 뇌기반 학습, 뇌기반 교수 학습, 신경교육 등이 탁월한 뇌과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으로의 확산 및 활용이 더딘 이유는 뇌 상태를 실제로 변화시키고 능동적으로 이끌어내는 교육방법론이 아직 충분히 영글지 못한 탓이다. 특히, 서구에서의 적용방법론의 대부분이 사고 및 추론 등 인지기능의 향상에 초점을 둔 방법인 반면, 한국의 뇌교육은 신체활동과 정서, 인지학습 간 통합적 기능발현에 초점을 둔 ‘체험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도 커다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체험적 방법론에 기반한 교육방식은 지식기반 방식 보다 뇌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재미있으며, 무엇보다 지식의 이해정도에 상관없이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전달된다는 면에서 혁신적인 교육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뇌를 이해하고, 알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한민족 전인교육의 철학과 뇌과학 접목

한국의 뇌교육이 서구의 주목을 받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유는 전인교육의 철학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교육은 글자 그대로 뇌를 잘 쓰는 방법이다. 뇌교육을 하는 목적은 뇌과학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진 뇌를 어떻게



깊은 사유와 통찰이 뇌교육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에서 가장 앞서 정립된 뇌교육은 전인적 교육 차원에서의 ‘인간완성’과 ‘홍익인간’ 철학에 그 교육적 근간을 두고 있고, 체험적 교육방법론에 근간한 두뇌발달단계를 따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홍익인간’은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2조에 제시된 교육이념인 동시에 타인 존중과 배려, 공동체의식 함양, 글로벌 휴먼마인드 정립 등 전인교육에 가장 부합하는 철학으로 인성 함양을 위한 근본가치로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 고조선 및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하늘, 땅, 사람이 하나라는 천지인天地人 정신과 문무교육,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심신쌍수心身雙手의 습관은 한민족의 원형을 담은 정신문화를 이루는 골격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뇌교육은 이러한 한민족의 정신문화적 자산과 21세기 뇌과학적 연구가 결합되어 체계화, 학문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뇌교육에서는 뇌를 생물학적 입장에서 다루는 뇌과학과 뇌를 기억이나 재생과 같은 학습의 효율성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뇌기반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제는 인간의 건강과 행복, 의식의 성장을 위해 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평화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뇌교육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꼽고 있으며, 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뇌교육은 건강, 행복, 평화를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민족, 인류로까지 대상을 확장하는 전체적 차원의 개념으로 인식한다. 이는 삶의 질을 개인의 내적 차원에서의 행복감, 만족 정도로 다루었던 기존의 인식을 넘어 사회적 관계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통해 건강, 행복, 평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인성의 증진은 개인, 개인간, 그리고 개인과 사회, 인류의 건강 · 행복 · 평화를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 가장 앞서 정립된 뇌교육은 한민족 고유의 정신문화적 자산과 21세기 뇌과학이 접목된 형태로, 철학, 원리, 방법론에서도 커다란 독창성을 가진다. 즉, 뇌교육은 한민족의 정신문화적 자산과 21세기 미래자산인 뇌과학을 통해 정립된 21세기 인간완성학이라 할 수 있는 셈이다. 누구나가 가진 뇌의 실제적 활용과 계발, 글로벌 휴머니즘을 갖춘 평화철학의 토대 위해 정립된 한국의 뇌교육이 글로벌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1). 뇌과학에 기반한 학생 창의·인성 및 학습력 증진 방안 연구.
 국제뇌교육협회인증원(2011). 21세기 뇌교육 기본과정.
 이승현(2010). 뇌교육 원론. 서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정종진 (역)(2010). 뇌기반교육의 원리. 서울: 학지사.
 Mariale Hardiman(2012). The Brain-Targeted Teaching Model. California: Crown, Mel Levine(2002). A MIND AT A TIME.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개발 방향



목차

1. 뇌교육과 평화교육
2. 세계시민교육
3. 뇌교육과 세계시민교육
4. 지구시민교육의 학습모형

1. 뇌교육과 평화교육



뇌교육은 그 활용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 뇌의 잠재성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평화교육이다(국제뇌교육협회,

2014). 2001년 제1회 휴머니티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된 뇌선언문에 따르면, 뇌교육에서 바라보는 인간 뇌의 특성은 훈련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성을 개발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평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평화가 항상 먼 곳에 있는 목표로서 추상화되고 관념화되었기 때문이다(이승현, 2002).

개인이 주체로서 평화를 체험하고 자신 안에서 평화 실현을 위한 열망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

교육의 기본 시스템인 뇌활용 BEST 5단계는 평화를 체험하기 위한 신체·정서·인지의 조건을 마련하고 평화를 체험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이다.

1990년 한국뇌과학연구원(구 한국인체과학연구원) 설립 이후 한민족의 정신문화적 자산과 21세기 뇌과학의 연구성과를 접목한 인간 뇌활용 분야의 중점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뇌교육(Brain education)'의 학문화가 본격화되면서 뇌교육 석박사 대학원과정, 4년제 학위과정을 갖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를 토대로, 지난 15여년간 다양한 연령별, 계층별로 신체적·정서적 상태를 증진하는 360여가지의 뇌교육 프로그램이 체계화 되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2000~12년 사이에 '명상'과 '뇌,' '명상과 뇌과학'이라는 키워드로 발표된 논문은 총 45편으로 그중 35편이 '뇌교육'에 대한 논문이었다고 한다(브레인, 2014). 또한 2015년 기준 뇌교육 관련 등록 민간자격증만 해도 20개로, 명실상부 뇌교육은 이제 대중화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뇌교육 대중화시대에 이제 뇌교육은 학습성취도 향상과 인성교육, 자기계발 등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활용을 넘어, 전 지구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화 실현을 위한 글로벌 리더양성을 위해 활용될 시점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2. 세계시민교육

국제사회에서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를 초월한 책



임의식과 실천을 강조하는 교육이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을 전후해서이다.

2015년 5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은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이래 15년 만에 열리는 국제행사로,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평화실현을 위한 교육의 성과를 정리하고 2015년 이후 세계 교육이 나아가갈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유네스코의 195개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와 유엔(UN) 등 국제기구 수장, 시민단체 및 학교 전문가 등 1,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도출된 국제사회의 약속은 인천선언으로 발표되었는데, 이 선언에서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교육의 역할, 특히 세계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주최국인 한국 정부 또한 세계시민교육이 새로운 국가 교육 목표의 핵심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가 국가와 문화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서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인류 공동의 문제들에 대해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이전에도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따라 인권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등의 이름으로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실행되어왔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들이 ‘더욱 정의롭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으로 목적을 공유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사회과목과 도덕과목 교과 과정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외에도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프로젝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문화이해교육,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등 주로 국제기구와 국제개발협력기구 중심으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3. 뇌교육과 세계시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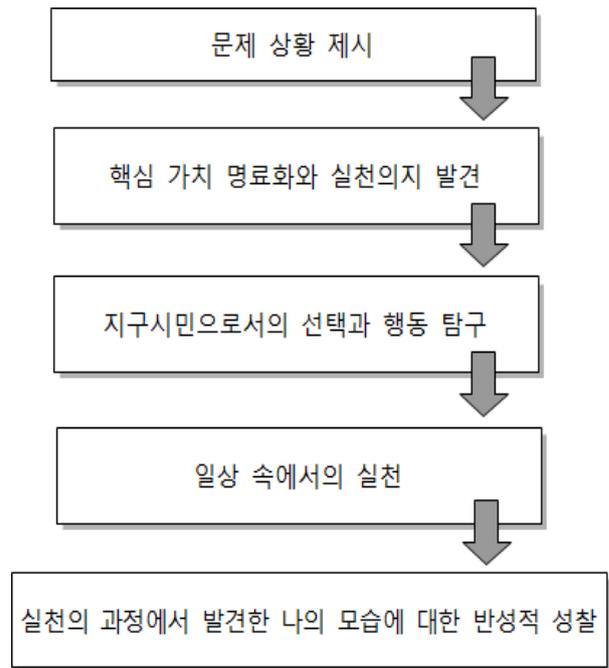
교육을 통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지구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과 공동체적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뇌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자가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의지의 차원을 넘어서(김옥순 외, 2013) 상생과 공존을 위한 가치를 내면화하고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성적 성찰을 강화하는 교육적 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김진희 외, 2014)

국제뇌교육협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하여 세계시민교육에 반성적 성찰을 위한 학습활동을 결합하고 뇌교육 기반 세계시민교육인 지구시민교육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교육이 가지는 다층성으로 인해 세계시민교육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뇌교육의 요소와 구체적인 글로벌 이슈를 결합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학생 대상의 지구시민교육을 개발하여 파일럿 수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2016년부터 연령별 지구시민교육을 기획·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4. 지구시민교육의 학습모형

지구시민교육은 학습자의 반성적 성찰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학습모형을 적용하여 개발되고 있다.



첫째,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성찰하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스스로 내면에서 발견한다. 둘째, 성찰적 글쓰기와 내러티브를 통해 학습을 통해 내면에서 발견한 바를 공고히 한다.

셋째, 일상에서의 실천과 장애극복 사례를 자신감 있게 발표하게 함으로써 지구시민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총체적 긍정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위의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대상 지구시민교육(전 8회기, 회기당 90분 수업) 파일럿 수업의 1회기 수업을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양쓰레기를 소재로 지구시민의식을 세우는 수업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현재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3곳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일럿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학생들의 소감문과 발표내용, 교사 피드백을 토대로, 학생들이 스스로 지구시민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지점을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뇌교육교과 연구회와 뇌교육 전문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개최를 통해 내년도에는 학교 현장에서의 보다 폭넓은 지구시민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 : 지구는 누구의 소유인가?

단계	교수·학습활동
문제 상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내가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의 최종 종착지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확인하기 •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고통받는 동물들
핵심가치 명료화와 실천의지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옆 친구와 나의 생각과 느낌 이야기하기 • 앞 친구에게 옆 친구의 생각과 느낌 정리해서 전해주기
지구시민으로서의 선택과 행동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 구상하기 • [생각의 확장을 위한 자료 제시] 17세 소년이 시작한 오션클린업 프로젝트
일상 속에서의 실천	[과제실천]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 실천
실천을 통해 발견한 나의 모습에 대한 반성적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실천 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느낀 점- 어떤 장애가 있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 글쓰기- 나는 왜 지구시민인가?

※ 참고문헌

국제뇌교육협회(2014). 국제뇌교육협회 2014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보고서, pp. 17-21.
 김옥순 · 신인순(2013).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 연계형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례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제36호, pp. 22-24
 김진희 · 임미은(2014). 공정여행 수업활동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의 의미 탐색. 『한국교육』 Vol.41, No.3, pp. 236.
 『브레인』(2014) 46호, pp. 55
 이승현(2002). 『숨쉬는 평화학』, pp. 19. 한문화.

후원하기

Brain Education As Tool of Peace Education



● 국제뇌교육협회는 21세기 인류 미래의 키워드인 '뇌'의 무한한 자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국제단체입니다.

오늘날 인류문명을 만든 것이 인간 뇌의 창조성에서 비롯되었듯, 당면한 물질문명의 위기를 해결할 열쇠도 바로 인간의 뇌 속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먼브레인(Human Brain)'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뇌교육 컨설팅을 통해 인류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 국제뇌교육협회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 후원금은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뇌교육 관련 출판물 발행 및 보급, 뇌교육 관련 컨설팅, 해외 교육원조, 뇌교육 컨퍼런스 개최, 프로그램 연구개발, 사무국 운영 등에 지출됩니다.

월 5천원 이상 정기후원이 되시면, 격월간 뇌교육매거진 <브레인>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뇌교육 정보를 뉴스레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뇌교육협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